

# 시음 주보

제245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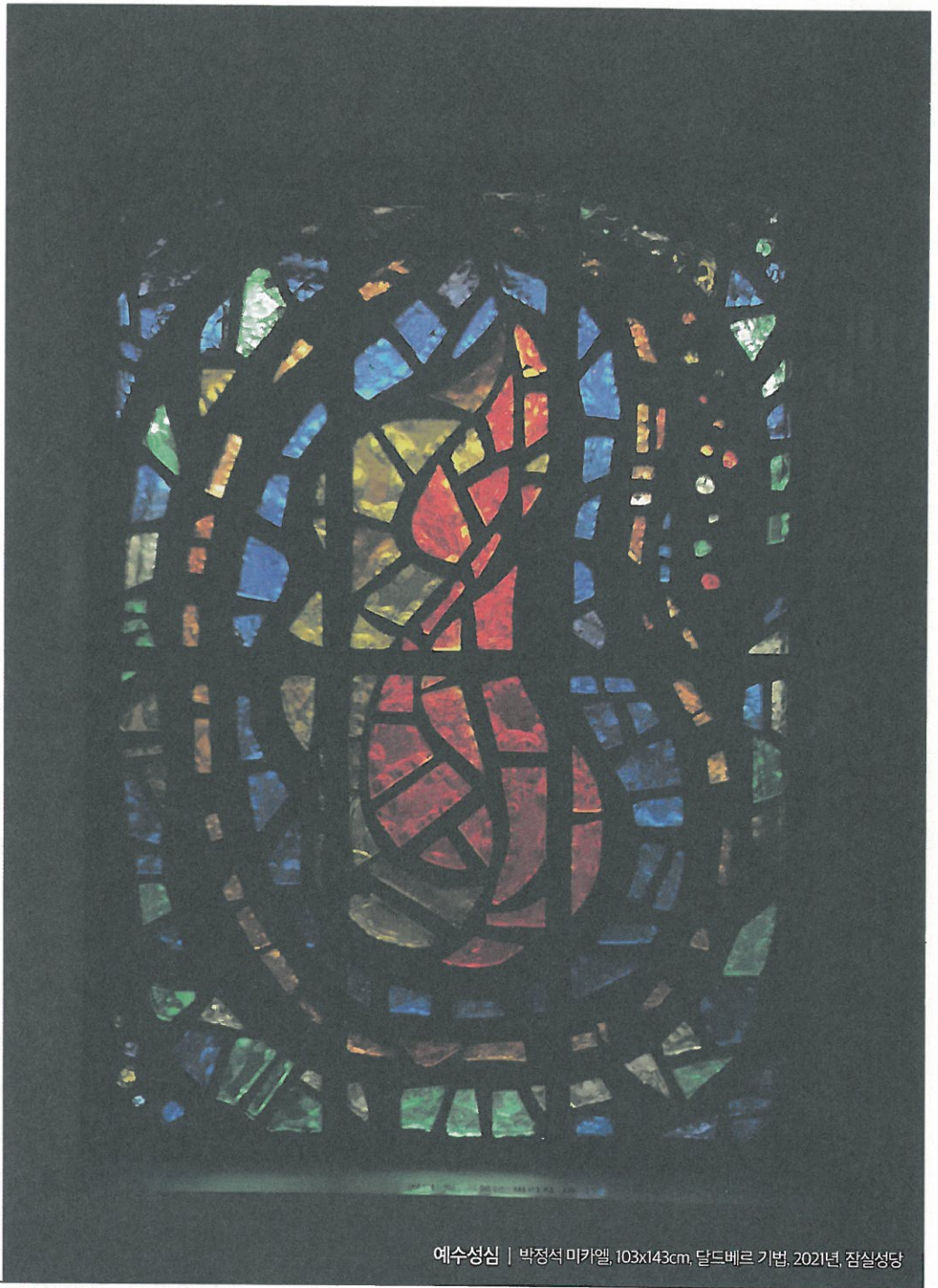
2023년 7월 30일(가해)

연중 제17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http://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ube](http://www.youtube.com/@catholic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예수성심 | 박정석 미카엘, 103x143cm, 달드베르 기법, 2021년, 잠실성당

**입당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1열왕 3,5-6 7.7-12

**화답송** |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 ㄱ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뉘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8,28-30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 마태 13,44-52 <또는 13,44-46>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하느님의 약속

구약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주 표현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 이스라엘 땅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약속받은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젖을 짜고 야생벌의 꿀을 모아야 살아갈 수 있는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위한 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척박한 환경의 생존을 위한 삶의 지속성을 염두에 둔 생태학적 접근도 있습니다. 음식과 농사에 대한 규정 등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희년’ 기간에는 토지 사용을 금하고 그 전년도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토지의 힘(지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저장해 놓은 곡식이 한 해를 사는데 넉넉지는 않지만 아껴가며 희년을 지냅니다. 이는 제한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공동체의 결단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이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행동을 전합니다. 두 사람 모두 발견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팔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와 사회는 지속성과 생존을 위해 공동체적인 숙고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 숙고와 결단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되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함께 공존하고 지속적인 삶을 위한 방향이

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이득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복음의 빛’으로 주어진 힘과 지혜를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 뿐 아니라 생태계의 목소리마저 담아내야 진정한 변화, 하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혁신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경험으로도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을 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을 때, 힘이 들더라도 희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됨을 체험합니다. 오늘의 복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입당송의 시편과 같이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늘 나라 완성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파는” 결단과 용기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희망하며, 하느님께 우둔한 마음을 주시도록 축복을 청합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해도 우리의 노력이 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도록. 많은 이들이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시행하여 가난한 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의와 친절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 기쁨을 느끼며, 그 가치를 알기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주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숨겨진 하늘 나라는 발견은 쉽게 할 수 없지만 존재는 반드시 하기에, 희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음이 되새기게 됩니다. 보물을 찾아가는 저 자신도 끊임없이 앞으로 가면서 성장하여 마침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저 스테인드글라스의 빛도 여정의 방향을 알려주며 오늘, 저를 격려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클래스



말씀의  
이삭

## 좋은 문장으로

저의 스무 살 초중반 시절의 키워드는 '자괴감'이었습니다. 배우의 길을 위해 노력할 의지는 부족했지만,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력으로 해소되지 못한 욕심은 어느새 완벽주의로 제 안에 자리를 잡았고, 그 완벽주의는 자기 질책으로 점점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낮추며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제 안의 사랑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몇 년을 자책만 하며 살던 어느 날,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못난 사람인 것 같아.”

어머니가 대답하시길 “왜 그렇게 생각해? 네가 가진 단점이 뭔데? 있으면 세 개만 말해봐.”

“나는 너무 예민하고, 욕심도 많고, 무신경해.”

“좋은 문장으로 그걸 바꾸면, 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신경 쓸 줄 알고, 네가 가진 것들을 발전시킬 힘이 있고, 단순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잘 잊을 수 있겠네.”

사실 그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단점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전 무신경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좋은 문장’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장단점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저 하느님께서 주신 어느 점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장점으로 바라볼지, 단점으로 바라볼지는 오직 우리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가진 모든 단점을 바꾸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욕심도 더 나은 실력과 달란트를 위한 원동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는 자괴감들도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거울로 생각했습니다.



김유정 발레리아 | 노래하는 배우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특히 제 나이가 또래나 더 어린 연령의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신앙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결국엔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좋은 것들을 발견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진 나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떤 신앙 에세이에서 이런 비슷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끌렸던 이유는 그리스도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좋은 것만이 답인 답답하고도 폭력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그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을 꽃 피우려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랑스러운 신앙입니다. 예민하고 욕심 많고 무신경한 발레리아는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친히 당신의 모상으로 저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위해 오늘도 저 자신을 좋은 문장으로 고쳐보고 또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위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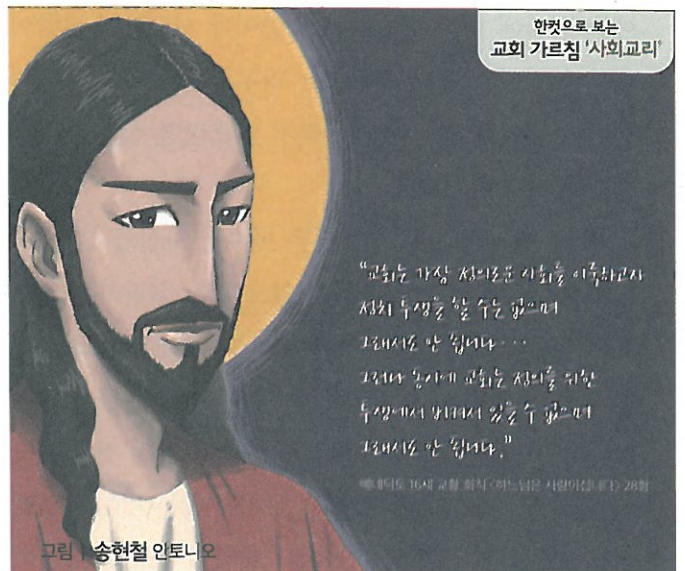


그림 | 송현철 인턴노

#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밀나이다.” 공포인가, 희망인가?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설렘과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향하는 파루시아에는, 오실 그분이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리라라는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늘 두려운 일이고, 더욱이 그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최종 심판’이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실에 따라, 특히 가장 약한 이들에게 행한 것에 따라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각각 영원한 상과 벌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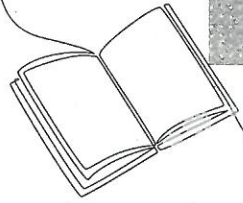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중에 감히 ‘나는 영원한 상을 받을 만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최후의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시니 그냥 모두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안 될까 싶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기에는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말씀이 너무나 진지하고 준엄합니다. 파루시아에 대한 희망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으려면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요한 5,22) 이 말씀은 창조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 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골로 1,16)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에페 1,10 참조)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뤄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요 완성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역사 안에서 말씀과 행적, 특히 십자가에서의 수난과 죽음, 부활 사건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 그분만이 모든 인간을,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느님을 거슬러, 하느님 없이 살고자 했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 이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당신과 화해시키셨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를 위해 심판받은 분이시고, 심판자이자 동시에 심판의 준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판은 그분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그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 사도 바오로의 복음 선포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사도행전은 13장 이후부터 본격적인 바오로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회심 사건 이후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을 세 차례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맨 처음 바오로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면 다른 민족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바오로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인지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갈라 2,9 참조) 그러나 바오로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는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은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복음 선포문은 베드로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문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부활로 시작한다면, 바오로의 복음 선포문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며,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는 하느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17,25-26) 이런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복음을 듣는 대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 대상은 하느님을 아는 유대인입니다. 그

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선교하는 대상은 야훼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은 제우스,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사랑의 신은 큐피트 등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의 신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복음 선포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모두 허상이며, 진정한 신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오로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17,22)

복음 선포는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그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팻말로 배려 없는 일방적인 선포를 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선포는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선전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진정한 복음 선포는 선전과 선동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통해 삶을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말과 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삶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오로도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좀 더 인내하며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 지구를 위한 연대



맹주형 아우구스티노 |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사거리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해 모인 이들은 함께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광화문 사거리 건널목에 피켓을 들고 섭니다. 가급적 시민들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오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섭니다. 기후 피켓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애써 외면하는 사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문구를 읽는 사람, 맘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 조용히 다가와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엄지손가락을 들고 미소 짓는 외국인 등등.



금요기후행동은 2018년 9월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지구 환경 파괴에 침묵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치인들

과 기성세대에 경고하고 저항하는 의미로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의회 밖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 피켓을 들었습니다. 2020년 4월 성금요일에 시작한 가톨릭 기후행동의 기후 피케팅에 모인 이들은 20대 청년에서 7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매주 참여하는 칠순 넘은 카타리나 할머니가 계십니다. 얼마 전 다리를 다치시기 전까지 할머니는 매주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하셨습니다. 할머니 피켓에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지구를 살리자.”라고 적혀있습니다. 금요기후행동을 하며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 지구를 위해, 기후 위기로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가난한 이웃들과 동식물을 위해,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회개와 전환을 이루도록,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기후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금요기후행동에 모인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언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저 발!”(이사 52,7) 금요기후행동에 함께 하신 카타리나 할머니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환경은, 지구는 각 세대가 빌려 쓰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타리나 할머니는 그 세대의 책임과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세대 간의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59항)



# 지금 어디에 계세요?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영성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 삶의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로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곳을 운전해서 찾아가려면 지도 책을 들여다보고 미리 길을 익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는 중에라도 계속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가려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척척 길을 안내해 줍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더라도 바로 수정해서 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곳, 출발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현재 나의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면 출발지를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목적지뿐 아니라 출발지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출발지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동대성당을 찾아가갈 때, 등촌동에서 가는 길과 불광동에서 가는 길, 중곡동에서 가는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하느님과 이루는 일치, 그리스도를 따름, 영원한 생명 등)는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잘 가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

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식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찾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옆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만 신나고 좋으면 괜찮다는 의미일까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죠. 배우자는 청소, 세탁 등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는데 나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 들어왔으니, 집에서 쉬어야 한다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 함께 집안일을 하고 함께 쉬는 것이 더 편안하고 나은 참 행복입니다.

영성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신명 6,4 참조)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려는 곳을 향해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 식별에 관한 가르침에서, 영혼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영신수련》, 335,314-315항 참조)도 같은 이유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상단 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미사 때 최소한 언제까지 들어가야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오늘은 영성체 조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미사의 유효성이 유지되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지각했지만 주일미사를 유효하게 봉헌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일반적인 성사 전체에도 오늘의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식이 시작되고 나서 중간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인가?'와 같은 질문과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는 일곱 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이 성사들은 모두 성사의 유효성과 관계되는 핵심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성사의 핵심은 교회의 뜻에 따라 집전자가 세례자에게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경문을 외우는 부분입니다. 그 외 흰옷을 입혀 주거나, 대부, 대모가 촛불을 켜서 세례자에게 넘겨주는 등의 부분은 세례성사의 유효성과는 상관없지만, 예식을 보충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세례식에 지각했지만, 이마에 물을 붓고 집전자가 경문을 외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한 세례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성사에 핵심적인 부분만 놓치지 않는 수준에서 지각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얼마나 더 늦어도 좋은지 계산하지 마세요."(2017년 12월 20일 일반 알현에서)라고 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어느 규정집이나 법전을 살펴봐도, '언제까지는 와야 영성체를 할 수 있다'

는 식의 지각 규정(?)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전례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전례헌장 14항)와 같은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완전한 참여란 무엇보다 전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형식적 완전함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미사 때 집전자가 입당하는 순간부터 퇴장할 때까지 매 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미사 때 입당 예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미사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 미사 시작 전에 성전에서 충분히 복음을 묵상하며 내적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신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답은 더욱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사에 지각하셨고 영성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 빠지셨다면, 양심 안에서 진중히 성찰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마치 출석 도장 찍듯이 이번 주 묵의 영성체 한 번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매달리기보다는, 진정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3년 7월 11일)

- ①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조르조 마레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몽골 사목 방문(2023년 8월 31일(목)-9월 4일(월))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회원국의 추기경과 주교들을 초대하였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하여 염수정 추기경, 옥현진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정신철 주교, 문창우 주교, 한정현 주교가 동행하기로 하였다.
- ② 2023년 9월 1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조각상 설치 기념 특별 미사를 봉헌하고, 조각상 축복식을 갖기로 하였다. 이 특별 미사와 축복식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하여 염수정 추기경, 서상범 주교, 김종강 주교, 신호철 주교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 행사에 참석하는 공식 순례단은 주교들과 함께 교황님을 특별 알현하게 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2020년 11월 29일-2021년 11월 27일)을 마무리하며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기억하고자 그동안 조각상을 제작해 왔으며, 주교회의의 2022년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16개 교구가 조각상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 ③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팀 주관의 학술 심포지엄을 2023년 11월 21일(화) 10시-16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주관하는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를 2023년 12월 11일(월) 16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기로 하였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7년 8월 4일 정낙교 시몬 신부(34세)
- 1990년 8월 4일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72세)
- 2021년 8월 5일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86세)

### 신앙의 동반자 가톨릭 하상



한국 천주교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신 정하상 바오로의 굳은 신앙을 본받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길잡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 가톨릭페이(Catholic Pay)

교 무 금 | 미사예물  
주일헌금 | 기타헌금

가톨릭 하상  
다운로드



### 교구청 알림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여선주 개인전: 1전시실  
권은정 개인전: 2전시실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이산하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9일(수)~17일(목)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8월3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부사) / 문의: 02)727-2407, 2409

#### '저녁애' 도보순례 및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1) 해설이 있는 '저녁애' 도보순례

일시	코스
8월30일(수) 18시30분부터	명동성당-김범우의 집터-한국천주교회창립터-좌포도청터-종로성당-창경궁 야간투어

신청: 7월31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7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2)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8월1일 · 9월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 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쿠팡(OA)

## 특별 헌금 모금 현황(2022년 하반기)

2023년 1월 6일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교구청)

(단위: 원)

모금 일자	특별 헌금	참여 본당	금액 (원)	지급처
9월 25일	헌미헌금,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216	467,007,63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0월 2일	군인 주일 2차 헌금	218	504,592,343	군종교구
10월 23일	전교 주일 2차 헌금	219	424,039,241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11월 6일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219	390,446,620	(교구/전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성탄과 새해	국군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175	307,800,490	교구 소속 군종사제, 교정사목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12월 11일	자선 주일 2차 헌금	220	512,710,694	사회복지회, (재)한국중독연구재단
계			2,606,597,018	

\*본당 217, 국제 1, 준본당 9, 선교본당 5 | 총 232 곳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때: 8월25일~26일, 9월8일~9일, 11월10일~11일

**4050 신앙대회 피정**  
 때, 곳: 8월20일(일) 10시~17시, 파티마의 세계사도 직 한국본부(부산) 대경당 / 문의: 010-2289-6150  
 주최: ICPE 선교회·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대피정**  
 강사: 배광하 신부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틀담 청년 교회문헌통독 모임(노틀담 수녀회)**  
 대상: 39세 이하 미혼 여성 / 문의: 010-3930-6730  
 때, 곳: 8월9일~10월25일 매주(수) 19시30분~20시30분(1시간), 노틀담 교육관(북촌로54)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젊은이 성체초배의 밤 1박2일 핫(HOT) 피정**  
 특별 피정 지도: 문지성 수녀(말씀의 성모영보수녀회)  
 때: 8월5일(토) 14시30분~6일(일) 1박2일  
 곳: 성모영보수녀회 피정의 집(과천) / 인원: 30명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피는기도모임  
 회비: 5만5천원(1인 3식) /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피는기도모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선착순 접수 /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중고등부: 8월7일(월)~9일(수), 산정 성심원(경남)  
 일반부: 8월11일(금)~13일(일), 안토니오 피정의 집(서울)

**파티마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와 미사**  
 내용: 오후 2시 로사리오 기도, 오후 3시 미사 봉헌  
 준비물: 묵주, 미사 준비 / 문의: 02)3147-2402 서소문 밖 네펠리 순교성지, 02)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8월13일(일) 서소문 밖 네펠리 순교성지 집전: 정순택대주교  
 9월13일(수) 절두산 순교성지 집전: 두봉주교  
 10월13일(금) 서소문 밖 네펠리 순교성지 집전: 염수정추기경

**가정선교회 8월 피정·미사(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8월2일(수) 12시30분~17시 강사: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8월5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손무진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8월19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양창우 신부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의·미사: 박효철 신부 / 문의: 010-9074-6527  
 때, 곳: 8월7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 교육

**미사 전례를 위한 오르간 레슨**  
 문의: 010-4964-5274 제14동작지구(혹석동)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9기 개강**  
 때: 9월18일(월) 19시·10월5일(목) 10시  
 곳: 가톨릭회관 5층 복음화학교 교실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19시~22시(주5일 수업 예정),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6240-3216 김은지 선생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3년 가을 특강**  
 때, 곳: 10월18일~11월8일 매주(수) 13시30분~15시30분(강의), 12시10분(미사) 4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1층 성당 / 미사 후 간단한 점심 제공  
 회비: 4회 3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10월18일	국악 연주회 '해금으로 드리는 기도'	정겨운·해금살롱
10월25일	성모 마리아와 다미아노 십자가	김준성 작가
11월1일	현대미술과 찬상 어머니	이동욱 신부
11월8일	현대의 성모 도상	이종한 신부

**예수회센터 9월 개강 강좌**  
 12주 과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요 무료 피정 관상과 함께하는 묵주기도와 미사	이근상 신부
매주(월) 14시~16시(강의·기도·미사)	
그리스도교와 불교간의 대화	서명원 신부
현장 매주(화) 14시~16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 신부
현장 매주(금) 10시, 매주(토) 19시	
영성과 철학상담-이문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박병준 신부
실시간 줌(Zoom) 매주(화) 19시~21시	홍경자 교수

### 모집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010-6814-6010  
 활동: (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오디션: 8월20일(일) 오후 5시, 명동대성당  
 준비: 지원서 및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네이버 검색-로고스합창단-입단문의

**논현동성당 베네딕도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피아노(전공자), 목관, 금관, 현악기(비전공자 가능)  
 문의: 010-9048-5972 (문자)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합창단이 84회 정기공연(가을, 라흐마니노프의 밤생기도)을 함께할 30~40대 단원을 찾습니다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 문의: 010-2778-2704 총무

### 미사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8월5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곶벚나무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8월5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8월4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 1층(전철 4호선 명동역)

**은총의 겹세마니 성시간·미사초대**  
 대상: 예수성심의 열정적 사랑체험,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분 / 고백과 상담: 18시  
 때, 곳: 8월3일(목) 19시~21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문의: 010-5782-1875 성 아놀드 안센 영성센터

### 안내

**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소 / 문의: 02)828-3685**  
 살레시오회가 전문적인 마음사무를 시작합니다  
 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여성, 진로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지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esort.modoo.at>

**원주교구 '옥수수 잔치'에 초대합니다**  
 때: 8월24일(목) / 8월18일까지 접수  
 문의: 033)742-9113 원주, 02)2269-2930 서울

감사미사	11시~12시 /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 교구 사제 공동 집전
점심식사	12시~13시 / 중식과 옥수수 무료 제공
나눔잔치	13시~1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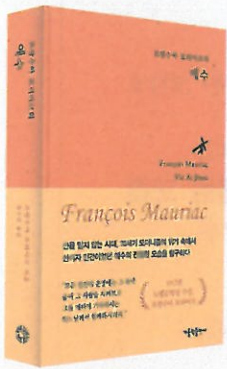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월30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휴가철 추천 도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11,28)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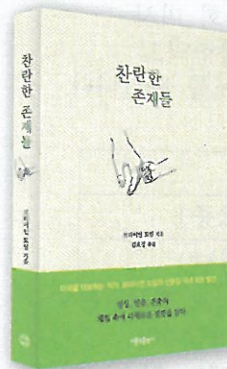


## 프랑수아 모리아크의 예수

프랑수아 모리아크 지음 | 25,000원

195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프랑수아 모리아크가 그린 예수의 삶  
신을 믿지 않는 시대의 위기 속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린다

신간



## 찬란한 존재들

브라이언 도일 지음 | 19,000원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브라이언 도일이  
노래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순간들  
일상, 믿음, 은총의 체험 속에  
다채로운 빛깔을 담다

수능 D-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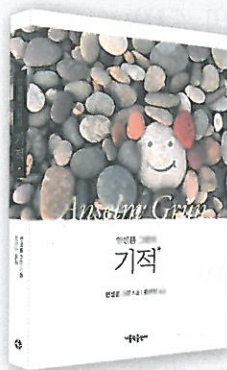
## 수능 100일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4,000원

온라인 기도 모임 모집 예정  
인터넷 쇼핑몰 참조(catholicbook.kr)  
소중한 이의 앞날을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휴가철 추천 도서



## 안셀름 그윈의 기적

안셀름 그윈 지음 | 17,000원

안셀름 그윈 신부가 알려 주는  
평범한 순간들의 의미  
우리 일상을 채우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다

휴가철 추천 도서



## 마음 in 말

로랑 데볼베 지음 | 14,000원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말하기  
말씀의 모범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언어의 기술

휴가철 추천 도서



##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홍성남 지음 | 12,000원

누구에게 말할 수도 터놓을 수도  
없던 내 마음 혼자서 치유하기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일러 주는 마음 지침서



제2291(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연령회 미사

일시 : 8월 1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월 15일(화)	오전 7시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 주일학교 미사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 하시기 바랍니다.

### ◎ 8월 성모신심미사와 병자영성체는 없습니다.

### ◎ 연성회(70대) 정기모임

일시 : 8월 10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4일(금)~6일(주일)  
장소 : 어름치 캠프학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회비 : 80,000원  
접수 : 신청서 혹은 인스타그램 DM  
접수마감 : 7월 23일(주일)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주일학교 캠프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대여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일시 : 8월 11일(금)~13일(주일) 2박 3일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유치부 ~ 6학년  
회비 : 인당 50,000원  
문의 : 이경화 로사 교감 (010-2737-4091)



### ◎ 청년 여름캠프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접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학부생 50,000원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8일(화) ~ 11월 16일(목)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사전모임 : 7월 30일(주일) 청년미사 후 304호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그룹원 모집

23년 가을학기 소그룹 나눔을 맡아주실 봉사자와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 8월 넷째주까지  
대상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중 해당 과정 신청 청년  
문의 : 사도요한 대표봉사자 (010-3223-5747)

###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희동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youth.yh))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 여성구역회 기금마련을 위한 판매 수익금

옥수수 수익금..... 600,000원  
오이지 수익금..... 1,400,000원  
\* 빨랑카와 도움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7. 2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8	790 (38.2%)	756 (36.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감사헌금 (7월 17일~23일)

허남진 .....삼십만원	홍옥경 .....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안예진 .....일십만원
송기종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서정대 .....오만원	강경탁 .....오십만원
최종태 .....일십만원	이영주 .....삼십만원

###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6주일)

교 무 금 ..... 6,225,000원  
주 일 헌 금 ..... 5,600,830원

입당 459 봉헌 512, 213, 217 성체 156, 18, 187 파견 6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 하나이다